

19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위기와 대응 - 신 유형의 참여자와 운동 변화

최승원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소멸과정에 있었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당시의 학생운동이 침체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인 재생산을 꾀하고 있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심층면접을 실시해 당시의 학생운동 지형 및 개인들의 의식과 실천을 추적하였다.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지속하는 참여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당시의 학생운동에는 신 유형의 참여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학생운동을 통해 개인의 이해 보전이나 소속 공동체의 소멸 방지와 같은 현실적인 사안들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했다. 아울러 학생운동에 대해 스스로 먼저 주체적인 탐색을 행했으며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 과정을 거쳐 참여를 결정하고 있었다.

현실 감각과 유연함을 갖춘 신 유형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일각에서는 침체된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들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운동의 폭력성을 지양하면서 보다 대상 존중적인 동원 방식을 도입했으며, 문화적 대중화 전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서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운동과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고자 했다. 또 시대적·개인적 필요에 따른 다양한 생활의제와 부문운동들을 발굴해 실천해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의 그와 같은 자아비판과 위기 타개 노력들은 심각한 침체에 빠진 운동에 활력을 더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것이었다. 그러나 운동의 완전한 소멸을 방지하는 동시에 운동의 지형을 확장하고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질적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제어 : 학생운동, 1990년대 후반, 참여자, 주체성, 합리성, 현실감각, 유연화, 대중화, 일상운동, 부문운동

1. 서론

근대 이후의 한국사회에서 대학생층은 권위주의 정권들의 억압통치에 대응해 민주화 운동을 이끈 견인차였다. 1960년대의 4·19 혁명이나 1970년대의 반독재·반유신 운동, 1980년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6월 민주항쟁의 최전선에는 학생운동진영이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학생운동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유일무이하게 독자적인 의식과 체계를 갖추고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집단이었다. 오랜 권위주의적 통치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는 민주화와 자주화를 주도해갈 중앙정치권이나 민중 기반이 미약했고, 강압적 경제발전 경로로 인해 노동계급운동 역시 형성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서중석, 1997).

한국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으로 활동하던 학생운동의 지형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7년에 일어났던 6월 민주항쟁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6·29 민주화 선언이 공포되면서, 한국사회에는 형식적으로나마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어갔다. 아울러 냉전종식이라는 당시의 급격한 세계정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그로 인한 민주화의 진전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약화는 개인들의 의식과 행위에도 괄목할만한 변화를 가져왔다. 시민참여의 공간이 확장되었지만 변혁적 사회운동보다는 중산층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시민운동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최장집, 2002: 35). 사회 전반적인 보수화와 함께 지속적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안정까지 더해져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대중소비문화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어갔다.

사회 전반적인 변화는 대학사회와 대학생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90년대 진입 이후 대학생들의 관심은 거대담론이나 사회적 이슈보다는 학교생활과 취업, 여가활동 등의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들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듯 학생들의 욕구가 현실화·다양화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진영은 변화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기존의 정치투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1993년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을 새로 구성한 후 주한미 군철수, 핵무기 철거,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내걸며 통일투쟁에 역점을 둔 것이다(전재호, 2004: 168). 그 결과, 학생운동은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일반 학생대중들로부터 점차 외면 받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의 위기는 더욱 급격히 가속화되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발생했던 연세대 한총련 사태(1996)와 IMF 구제금융 사태(1997), 학부제 도입과 같은 대학들의 대대적인 학제 개편은 학생운동진영의 조직과 활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반체제 폭력집단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로 얼룩진 학생운동은 시민과 학생대중 양측으로부터 더 이상 지지되지 못했다. 또한 학생운동은 당시 대학생 대다수의 관심권에서도 점차 멀어져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곤란이나 취업과 같은 당면한 현실적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과라는 학내 기초생활단위가 사라져 파편화 된 대학생들의 현실과 욕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총학생회 선거 투표율은 매년 하락했고 단과대나 학과 학생회 선거에서는 아예 후보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 각종 시위에 동원되는 학생 수도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처럼 90년대 후반에 들어와 학생운동의 외형과 역량은 현저하게 축소되고 있었다. 1992년부터 대두되곤 했던 '학생운동의 위기론'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장석준·조하연·홍일표, 1997: 57).

그렇다면 9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학생운동은 완전히 쇠퇴하게 된 것일까? 그를 속단하는 평가들에도 불구하고 학생운동이 완전히 쇠퇴 혹은 소멸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설부른 감이 있다. 규모와 파급력은 크게 줄어들었을지언정 당시에도 일부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참여와 활동은 여전히 유효하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좁게는 교내 학과·반 학생회 활동에서부터 넓게는 대통령선거나 총선거, 반미 시위 등의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대학생들의 고민과 실천은 계속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노선과 방법론을 재정비하고 의제를 분리·확장하는 등의 새로운 모색들을 통해 운동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려

는 노력들이 내부에서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90년대 후반에 도래했던 운동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생운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재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의문의 규명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90년대 후반의 침체된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운동 참여 결정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운동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자들의 모색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 결과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화해갔는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을 둘러싼 구조적이고도 개인적인 맥락 모두를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내·외부를 둘러싼 정황뿐만 아니라 그에 참여해 운동의 위기를 긍정적으로 극복하려했던 개인들의 의식과 실천 양상을 소상히 밝혀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생존과 변화를 설명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개인 행위자들의 사회운동 참여 동기와 과정에 대한 구성주의이론

1970년대 이후 현대사회의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자원동원이론(Resource Mobilization Theory)과 신사회운동론(New Social Movement Theory)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은 계급운동 중심이었던 그때까지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전략 지향적이고 정체성 지향적인 현대 사회운동의 특성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사회운동이론을 구축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운동조직과 동원과정 및 전략, 집합적 정체성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사회운동의 행위자(actor)들을 마치 하나의 단일한 존재처럼 가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상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Melucci, 1988).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구성주의이론(Constructionism)이다. 구성주의이론은 자원동원이론과 신사회운동론의 이론적 성과뿐 아니라 맑스와 베버 등의 고전적인 집합행동이론, 사회심리학적 접근, 구조기능주의적 접근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자원들을 망라해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럼으로써 사회구조, 사회운동과정, 행위자, 그들의 행위 모두를 포함한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임희섭, 1999).

구성주의이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주제는 바로 개인 행위자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와 과정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다. 구성주의 이론가들은 자원동원이론이 합리적 행위자라는 그들의 전제로 인해 특히 참여자들의 불만(grievance)이나 그들 간의 연대성(solidarity) 및 집합적 정체성(collective identity), 참여의 의미(meaning)와 이념(ideology)의 문제 등을 분석에서 제외하거나 소홀히 취급해왔다고 비판했다(Mueller, 1992). 따라서 뮐러(Mueller, 1992)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생존욕구(survival needs)에 근거한 집합적 의무감을 역사적 행위자(historic agency)로서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전환시켜 적극적인 사회운동 참여자로 나아가는 과정을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러한 사회적 구성의 집단적 맥락과 전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야말로 사회운동 연구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뷔클러(Buechler 외, 1997) 역시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이 새로운 자원과 결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이 발생한다는 경험적인 연구들을 근거로 '사회적 불만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grievance)'이 사회운동 연구의 새로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클랜더만스(Klandermans, 1997)는 사회심리학적인 관점을 도입해 개인들이 그들의 불만을 집합행동으로 전환시켜가는 과정을 네 단계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1) '동원 잠재성(mobilization potential) 형성' 단계에서 개인은 특정한 사회운동에 대해 동정적인(sympathetic) 또는 비동정적인 태도를 구성한다. 2) '동원(mobilization)'의 단계에서 개인은 사회운동 조직에 의해 동원의 대상(target)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 조직은 자신들의 운동에 동정적인 개인들을 동원의 대상으로 삼는다. 3) 동원 대상이 된 개인은 '동기화(motivation)'의 단계에서 참여자들에게 기대되는 '집합적 보상(collective benefit)'과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을 고려하는 과정을 통해 집합행동에의 참여 동기를 가지거나 가지지 않을 수 있다. 4) 마지막 '장애(barrier) 극복'의 단계에서 개인은 장애에 당면하더라도 참여를 결정할 수도 있고 당면한 장애로 인해 참여를 포기할 수도 있다. 클랜더만스는 이와 같은 모델을 통해 왜 어떤 개인들은 집합행동에 참여하고 다른 개인들은 참여하지 않는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에게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구성주의이론에 기대어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개인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당시의 학생운동가들이 침체 중인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던 동기와 과정이 과연 어떠한 개인적인 불만이나 욕구, 혹은 집단적 맥락과 정체성을 거쳐 사회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밝혀볼 것이다. 한편 동일한 사회운동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개인들은 참여 방식이나 기여도, 지속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클랜더만스의 분석틀을 활용할 것이다. 종합하면, 구성주의적 접근과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복합적으로 도입해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전반과 그에 참여했던 개인 행위자들을 면밀히 설명해보고자 한다.

2) 한국의 후기 학생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부진했던 한국의 학생운동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이 특히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연구 현황과 주제별 분류를 살펴보면 이제까지의 학생운동 연구는 학생운동이 이념적·조직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80년대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어떠한 이론적 근거에 입각한 심도 있는 분석보다는 학생운동의 역사 및 이념과 조직 등에 대한 기술이 대부분이다.

1990년대의 학생운동을 다룬 선행연구들의 대다수는 학계나 전문 연구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안논총』이나 『한국논단』과 같은 일반 저널이나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된 것들로, 반공논리에 입각한 당시의 학생운동 비판만이 중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박홍, 1997; 원천희, 2000 등). 비교적 균형적인 시각에서 침체해가고 있던 당시의 학생운동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제언하는 형태를 취한 논문들도 있으나(한홍수·김도중, 1993; 이후 편집부, 1998ab; 경실련 대학생회, 1993; 김기식, 1997 등), 이러한 시도들 역시 피상적인 수준의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연구의 분석시기인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동향에 대해 다른 연구는 그마저도 찾아보기 어려운데, 학문적 분석대상으로 삼기에는 상대적으로 최근이라는 시기적 근접성의 측면과 더불어 당시의 학생운동이 현실적으로 '퇴조'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의 반영일 것이다(송병현, 2003: 13).

한편 9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 연구 진영에서는 '포스트맑스주의'나 '탈구조주의·문화주의'와 같은 패러다임에 기대어 학생운동 내부의 하위문화와 정치 동학, 상징적 실천 양식, 참여자들의 정체성과 일상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김원, 1999; 권인숙, 2005; 신선영, 1997; 박현귀, 1997; 김재은, 2003; 김재민, 2004 등). 그간의 학생운동 연구에서 누락되어왔던 '주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참신하면서도 긴요한 것이다. 학생운동 내부의 동학을 다루면서 비민주성과 가부장성, 폭력성 등을 드러내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시 큰 의미가 있다(이창언, 2005). 더불어 심층면접과 같은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학생운동에 대한 미시적 이해를 구체적으로 확장시켰다는 점도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아직 관련 연구의 수가 많지 않으며, 기존의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집중하다보니 구체적인 대안 모색이나 새로운 운동의 향방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장점을 계승하여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분석에 구성주의적이고 해석적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심층면접을 실시해 이제까지 소홀히 다뤄져왔던 90년대 후반 학생운동

의 판도 및 내부 동학, 그리고 참여자들의 의식과 행위를 구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재현해볼 것이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운동을 '대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한국사회나 대학 내부,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표명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는 모든 운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점차 정치 투쟁 일변도의 성격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을 둘러싼 사회와 일상의 의제들로 관심사를 확장해가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학생운동의 정치적인 특성에만 입각해 사회모순에 근거한 대(對) 사회적 개혁운동으로 바라보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와 같은 정의를 전제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처했던 총체적인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학생운동이 소멸되지 않고 재생산이 가능했던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우선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을 둘러싼 상황과 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연구논문 및 신문과 잡지, 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살폈으며, 보다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학생운동 조직의 내부 문건이나 정리서 역시 참고했다.

문헌조사를 통해 90년대 학생운동의 지형을 파악한 이후에는 당시 학생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들의 학생운동 참여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활동을 1) 학생회 참여 2) 이념적 지향이 뚜렷한 인문·사회과학학회 참여 3) 풍물패, 극회 등의 학생운동 연관 동아리 참여 4) 각종 이슈에 관한 교내외 집회 참여로 설정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대학생활을 한 90년대 중반에서 2000 학번들 중에서 제시된 기준 가운데 적어도 2개 이상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면접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면접대상자는 학생운동에 적어도 1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로 한정되었다. 상대적으로 출입이 자유롭고 유연한 대학 내 학생조직의 특성상 적어도 1년 이상은 지속적으로 참여해야 그 조직을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고, 참여자 개인적으로도 학생운동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비교적 확고히 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¹⁾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에는 무작위 추출이 불가능할 때 주로 사용하는 '눈덩이 굴리기 방식(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첫 면접은 연구자의 사적 연결망 중에서 앞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상자로부터 시작했으며, 기 면접대상자들의 사적·공적 연결망을 통해 다음 대상자를 확보해나갔다. 표본이 편중될 수 있다는 약점을 가짐에도 눈덩이 굴리기 방식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생운동이 활발했던 이전 시기에 비해 90년대 후반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수는 그리 많지 않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로는, 직·간접적인 친분관계를 포함으로써 연구자와 면접대상자 간에 더욱 친밀한 관계(rapport)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대상자 간에 깊은 신뢰와 상호이해가 가능해지면 보다 내밀한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고 그는 곧 풍부한 자료의 확보로 연결된다. 더군다나 이 연구의 주제인 학생운동처럼 일상적이지 않고 사안에 따라 자칫 민감해질 수도 있는 인터뷰 시에는 친밀한 관계 맺기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눈덩이 굴리기 방식을 사용하되, 연구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을 면접대상자에 포함하고자 노력했다. 이때 고려된 요소들은 출신학교, 학번, 성별, 출신 지역, 학생운동 활동의 종류와 층위, 활동 지역 및 기간 등이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13명을 대상으로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에 걸쳐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응한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1) 실제로 이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했던 대다수 면접대상자에 따르면 진정한 조직원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은 운동에 참여해야 하며, 참여자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인지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그 외에 1학기 이상, 3학기 이상의 참여기간을 꼽는 답변도 있었다.

4. 199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참여

19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완전한 침체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 참여하고 있던 대학생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 이 장에서는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개인들이 어떠한 동기와 동원 과정을 통해 학생운동에 참여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운동 참여를 앞두고 그들이 맞닥뜨렸던 시대적·개인적 장애와 어떻게 그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역시 밝혀볼 것이다.

1) 전통적 유형

사회운동 조직은 ‘동원(mobilization)’을 통해 다양한 자원(resource)을 끌어오으로써 조직의 재생산을 이루고 전체 운동의 역량 역시 높이려 한다. 한국의 학생운동 역시 운동의 재생산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원의 확보에 힘써왔는데, 그 중에서도 인적자원은 전통적으로 학생운동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물질 기반은 약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 학생운동의 참여자 동원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특성은 바로 ‘미시동원(micro-mobilization)’이다. 미시동원이란 1차 집단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은 비공식적 사회연결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동원 방식을 가리킨다(임희섭, 1999: 154). 권위주의 정권들의 정치적 탄압을 피하기 위해 학생운동진영은 되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왔고 참여자 충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패밀리’와 같은 비밀조직에서부터 비교적 공개적이었던 관련 동아리들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조직은 사적 연결망을 경유한 홍보와 모집을 통해 재생산되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양학교, 학과행사 뒷풀이 등의 일상을 통한 ‘포섭’은 학생운동진영이 학생대중을 동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며 90년대 후반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다.

<표 1>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학교	학년	성별	학생운동에서의 위치	학생운동 관련 활동	활동 기간	현재직업
사례1	A대	93	남	총학생회장	기독교학생동아리 회원, 교내의 집회 참여	1년여	목사, 지역사회운동 단체 간사
사례2	A대	95	남	과 학번대표	풍물패 동아리 회원, 과내 역사학회 회원, 단과대 학생회 사업 활동, 교내의 집회 참여	1년 반여	대학원생
사례3	B대	95	남	과 학생회장, 총학생회 선거 준비회 정치국장	시사학회회원, 사회과학학회 설립, 교내의 집회 참여	5년여	회사원
사례4	C대	95	남	총학생회 집행부, 정치 사업국 국장	선봉대와 사수대로 교내의 집회 참여	4년여	시민단체 상근자
사례5	A대	96	여	과 학생회장, M정당 A대 구회대표	단과대 학생회장 출마, 교내의 집회 참여,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대학생 모임 활동	3년여	정당 지역지부 상근자
사례6	D대	96	남	과 부학생회장, 지역의학협회 집행부	중앙 연극동아리 회원, 동아리 연합회 활동, 교내의 집회 참여, 보건의료운동 참여	6년여	대학원생
사례7	E대	97	여	과 학생회장	기독교학생동아리, 한총련 통일선봉대 참가, 여성주의 동아리 설립 및 활동	4년여	대학원생
사례8	F대	97	여	과 학생회장	교내 집회 참여	1년여	시민단체 상근자
사례9	G대	98	남	과 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지역 총학생 연합부장	한총련통일 선봉대 참가	4년여	지역노련 상근자
사례10	H대	98	남	과 학생회장	단과대 학생회 활동 참여, 교내의 집회 참여	2년여	회사원
사례11	I대	99	남	단과대 학생회 집행부 국장	과학생회 집행부, 과내 역사 연구학회 회장, 교내의 집회 참여	3년 반여	대학원생
사례12	A대	99	남	과 부학생회장, 단과대 언론정치학회 회장, 총학생회 비서국	단과대학생회 활동 참여, 교내의 집회 참여, 교내 정당지부 총선후보 선거운동	4년여	회사원
사례13	A대	00	여	단과대 언론정치학회 회장	교내의 집회 참여	4년여	대학원생

그러나 학생운동의 전통적인 동원 전략은 90년대 후반에는 예전만큼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운동의 주체이자 대상인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동일이나 반미와 같은 학생운동의 정치적 의제에 크게 공감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정적일지라도 새롭게 알게 된 정치문제나 학생운동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 역시 존재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반응과 참여를 보이는 학생들은 학생운동진영의 중점적인 동원 대상이 되고, 계속적으로 친분관계를 쌓아가면서 점차 학생운동에의 관여도를 높이게 된다.

사회운동의 동원 대상이 된 개인들 중에서 참여 동기를 가지게 된 이들이 비로소 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바로 '동기화(Motivation)'라고 한다(Klandermans, 1997). 전통적인 유형에 따라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90년대 후반의 대학생들은 동기화 단계에서 운동의 이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학생운동에서 다루고 있는 의제들이 자신들의 과거 경험이나 관심사와 일치했기 때문이다.

사례4 :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가 광주분이셨는데 88년도 대선 당시 TV에서 노태우씨는 굉장히 친근하고 잘나가는 이미지로 그려지고 김대중, 김영삼씨는 빨갱이처럼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어느날 제가 TV를 보다가 노태우가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 사람이 광주민주화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아냐고 하셨어요. 그게 인상에 강하게 남았고 정치에 관심이 커졌죠. 정의과를 선택한 것도 그래서였죠.

참여자들은 가족에게 가해진 정치적 핍박이나 가난과 같은 직접 경험, 사회 비판적 언론매체의 보도,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지역사회 경험, 사회 참여적 종교 활동 등을 통해 대학 입학 이전부터 한국사회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 어렵풋하게나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학생운동에 대해 동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던 개인들은 학생운동 관련 인물이나 활동을 접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따라서 학생운동진영을 통해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독재자의

폭력적인 정치 행태라든가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 등과 같은 사회문제들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서 크게 분노하고 학생운동 참여에 더욱 강한 의식적 동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한편 '의식적 공감' 외에 대학생 개인들이 학생운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또 다른 동기는 '바람직한 대학생상(像)'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90년대 후반에 대학생층의 자기규정은 큰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80년대의 '대학자율화정책' 이후 대학교육의 대중화는 학력의 회소가치를 약화시켰고 하향취업과 고학력 실업자를 양산했다(민혜리, 2003). 게다가 1997년에 IMF 구제금융사태가 터지면서 촉발된 경제위기는 대학생들의 사회 진입 경쟁을 더욱 격화시켰다. 변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대학생들은 자신을 지식인으로 규정하고 사회문제나 학생운동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학점이나 취업준비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에게서는 당시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소 차별적인 의식이 발견된다.

사례12 : 저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래서 노력하고 행위하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그를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학생이라면 적어도 배타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어요. 취업난과 같은 가시적인 상황들이 대학생들에게 그들이 누리는 특권을 잊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직은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잊고 있는 거죠. 하지만 대학생이라면 자기가 딛고 있는 시대 또는 자기 존재 자체가 어떤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시대와 개인의 변화를 인지하고 수용하면서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의 대(對) 사회적인 성격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사회적 헌신 정도에 대한 의견차는 존재할지언정, 그들은 대학생이라면 개인적인 관심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목과 공공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전통적인 대학생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

다. 아울러 그러한 신념은 참여자들이 실천 수단의 하나로써 학생운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신 유형의 참여자들

19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는 포섭과 의식화라는 전통적 유형을 거친 참여자들 외에도 동원 잠재성, 동원 과정, 동기화, 장애극복 단계에서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가지는 신(新) 유형의 참여자들이 출현하는 중이었다.

가. 현실적 사안への 대응

사람들은 이념 추구 외에도 자신의 개인적 이해(interest)가 위협 받거나 공적인 쟁점에 대한 불만과 좌절이 커지면 집합행동에 참여하게 된다(Hirshman, 1982). 학생운동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편적으로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주화나 통일과 같은 이념적 동기를 달성하려는 참여자들로만 구성 및 영위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고정관념과 달리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인의 이해 보전'에서 비롯되어 운동 참여 의사를 굳혔던 참여자들을 눈에 띄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례8 : 저는 1,2학년 때까지는 방관적 입장이었고 신입생 OT도 안 갔어요. 보통 그런데서 학생운동 관련 작업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에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실습과목이었어요. '돌상 차리기' 이런 과목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런 걸 누가 들어요. 그런 과목들이 계속 폐강되면서도 커리큘럼에는 남아 있으면서 준 실습학과라는 명목으로 등록금이 다른 과보다 약 30만원 정도 더 비쌌어요. 저는 사실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는데 단대장을 통해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분노했어요. 부모님이 힘들게 등록금 마련하시니까. 그런 사실을 더 널리 알리기 위해 단대장이 대자보를 붙이자고 했고 저도 찬성해서 같이 하게 됐어요.

사례12 : 저는 학생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이념적으로 시작한건 아니에요. 제가 1학년 때 학부제를 실시하면서 기존의 과방을 없애고 그 자

리에 독서실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제가 편히 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기타도 치던 것들을 어디서 해요? 그래서 학생회장 형이 하는 1인시위에 관심을 가지고 옆에서 같이 서있고 그랬지요.

1997년의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및 대학들의 연이은 학부제 도입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교육문제는 대학생들의 위기감을 가중시켰다. 그들은 특히 자신이나 소속집단에 닥친 등록금의 부당 책정이나 급격한 인상, 과방 철거나 일방적인 학제변경 등에 대해 크게 분노했다. 정치적·사회적 이슈와 달리 그와 같은 문제들은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위협을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해에 대한 가시적인 위협의 등장은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진영에의 합류를 결심하는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등록금이나 학사운영, 학생복지 등은 개인 수준에서의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개인들은 효과적인 문제해결 경로를 모색하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 부상한 것이 바로 일련의 학생운동이었다. 그간 학생운동 조직들은 최우선 순위는 아니더라도 학내 사안들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었다. 아울러 효과적인 집합행동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 체계와 노하우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당면 문제의 해결을 원하나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개인들이 점차 학생운동진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형편이 어렵거나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절박한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그 중심이 되었다. 그들은 학생운동에 합류해 자신의 이해와 직결된 학내 안전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교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²⁾

한편, 개인 이해의 보전 외에 90년대 후반의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에

2) 유의할 점은 이해문제 해결을 동기로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학생운동 전체에 대해서는 상이한 입장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참여하게 된 만큼 특히 학생운동의 정치이념적인 부문에서 다양한 결속 정도가 나타나고 있었다. 학생운동 조직에 참여하는 가운데 그 가치와 논리를 체화하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중립적이거나 비판적이었던 이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학생운동에 관여하는 기간이나 헌신 정도도 낮은 편이었다.

참여했던 또 다른 현실적인 동기는 바로 '공동체의 소멸 방지'를 위한 노력에서 비롯하고 있었다. 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개인주의의 성장과 취업경쟁 심화, 학부제 도입,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등으로 인해 대학 내 학생자치기구들은 존속에 극심한 곤란을 겪고 있었다. 학생운동진영의 중심 조직이었던 학생회는 물론 일반 동아리나 학과 내의 소규모 그룹모임까지도 축소 또는 폐지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졌다.

90년대 후반의 일부 대학생들은 그와 같은 학생자치단체들의 고사 현상을 학내 공동체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진영과의 자발적·비자발적 연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학생회를 선택한 까닭은 학생회가 학생들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사례5 : 97년도에 학부제 2년차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고 결국 우리 과에서는 학생회를 못 세웠어요. 그런데 과 학생회 없이 1년을 살다보니까 문제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과학생회가 없으니까 학생행사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동제나 연고제, 농활 이런 것들 모두가요. 그리고 97학번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잘 안 만나고 동기끼리의 유대감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신입생을 받는 환영회에도 사람이 안 모여서 그 다음 학번도 또 다시 흩어지는 식으로 문제가 계속되었죠. 그래서 두 달여를 학생 모두를 함께 묶어내고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역할로서의 학생회를 고민하고 논의했어요. 운동권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자치단위로서의 학생회를 어떻게 잘 꾸려볼 것이냐는 토론을 한참 한 거죠. 그때 네가 한번 해보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말지 않으면 사실상 유아무야 되는 분위기여서 그럴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

90년대 후반에 몇 번의 부침을 겪은 후, 학생회는 학생 공동체를 위해 부재해서는 곤란한 존재로 재부각되었다. 어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의결 및 관리, 진행과정이 요구되는데 그간

그러한 역할을 맡아 수행해온 것이 바로 학생회였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 생활단위인 학과의 학생회는 최일선에서 학교 당국 및 총학생회와의 각종 연계활동이나 학과 차원의 소규모 행사 주최, 학생회비 분배, 공간 활용문제의 조정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는 일반 학생들이 속한 해당 공동체의 안정과 이익,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관계증진 모두에 긴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공동체 소멸에 따른 부정적인 과장을 우려하던 90년대 후반의 일부 학생들은 기존의 학생운동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관련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굳히고 있었다.

나. 주체적 탐색과 합리적 선택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미 학생운동에 동정적인 태도를 내재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참여 의지가 확고했던 개인들은 전통적 유형의 참여자들과는 차별적인 방식으로 학생운동에 진입하고 있었다. 바로 '개인의 주체적인 탐색'을 통해서이다.

사례13 : 학회의 회원모집 포스터를 보고 내가 알고 싶었던 미제를 충족시켜줄 학회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데는 보통 색채가 많이 진보적이잖아요. 당시는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라 무비판적으로 전염되거나 데모만 하게 될까봐 좀 무섭기도 하고 경계도 많이 뒀어요. 그래도 탐색차 일단 가서 함께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는데 일방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충분히 내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회를 선택했어요.

사례13 외에 또 다른 학생운동 참여자인 사례12 역시 외부로부터 동원되기 이전에 직접 먼저 학생운동에 참여한 케이스이다. 그는 1학년 초에 학교에 걸린 플래카드와 대자보를 통해 등록금 투쟁에 관한 정보를 접했다. 형편이 좋지 않아 등록금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무엇이든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주위로부터의 어떠한 권유도 없었지만 자발적으로 학교광장으로 찾아가 등록금 투쟁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만난 학생운동가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점차 학생운동에의 관여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처럼 본디부터 학생운동에 우호적이었고 참여를 고려하고 있던 90년대 후반의 개인들은 선배나 친구로부터의 참여 제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조직이나 운동에 대해 스스로 먼저 나서서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의 합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판단했다.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그와 같이 자주적인 개인 참여자들의 모습은 200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짧은 사이에 대학생 개인들의 심성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기보다는 당시의 시대 환경적 상황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된다.

사례10(98학번) : 예전에는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 때는 학생 운동에 관심이 있어도 그걸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일단 예전에 비해 사람들끼리 잘 안모였어요. 96년(연세대 한총련 사태) 이후 운동권을 꺼리는 분위기가 상당해서 사람들이 과방에도 잘 안 왔어요. 어찌다 사람들이 모여도 서로 정치 얘기는 안했어요. 웬지 모르게 불편한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은 혼자서 하고 그냥 수업이나 미팅얘기 같은 잡담이나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학년 때부터 학점 따고 취업준비 하느라 아예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90년대 후반의 학내에서는 이전과 같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운동 관련 인물이나 활동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연세대에 있었던 한총련의 대규모 폭력시위 사태 이후, 학생운동에 대한 학내 외의 여론이 급속히 냉각되었고 운동 조직 역시 급격하게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자연히 이 시기 개인들의 학생운동 참여는 이전처럼 학생운동진영의 동원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관심에서 비롯된 주체적인 탐색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적극적인 탐색을 통한 진입 외에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개인들의 특징은 바로 비용(cost)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이다. 민주화 이후에 학생운동을 둘러싼 환경은 분명 유희 국면

을 맞았으나 90년대 후반의 개인들에게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생운동에의 참여 결심이 쉽지만은 않았다.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그 요인은 주로 진로와 취업 고민이라는 현실적이면서도 개인적인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의 학생운동 참여 장애 요인이 주로 외부의 탄압적 정치상황으로부터 부과되었던 것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비용을 고려하다보니 관심 유무와는 별도로 마지막 장애 극복의 단계에서 결국 학생운동 참여를 포기하는 개인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결국 실질적인 예상비용과 심리적 부담감을 극복하고 학생운동에 합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의 결정에는 의식적인 요인과 현실적인 요인 모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생운동의 목표와 가치(value)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를 추구하려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학생운동에 대한 신념이란 참여비용에 대한 고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 설정한 가치나 신념에 의해서만 학생운동 참여를 결정지은 것은 아니었다. 90년대의 개인들은 사회운동조직 자체에 대한 관심과 평가에 기반을 두어 비교적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윤상철, 2005).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자들 역시 결정에 앞서 진로 문제나 사회적 평판 등의 현실적인 사안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렸던 학생운동 참여에 따르는 비용은 객관적 혹은 주관적 관점에서 다른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1 : 그때는 구속되는 것 같은 극단적인 결과도 없는 때였으니까 나중에 후회할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저는 신체검사 결과가 4급이어서 군대를 조금 늦게 가도 괜찮았죠. 그것도 분명 제가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한쪽으로는 마음이 편했던 부분이에요.

사례6 : 저는 다른 애들에 비해서 복 받은 측면이 있어요. 학생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보통 나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잖아요. 어떻게든 취직은 해야 하는데 저는 의대에 다니니까 일단 먹고 사는

측면에서 해결이 쉬웠어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걱정 없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임상은 안 하더라도 의료정책 쪽을 하면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상의 월급이 나오니까요.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취업이나 수입이 보장된 전공을 가지고 있거나 졸업 후에 취업이 아닌 대학원 진학 등을 계획했던 경우가 많았다. 한편 그들 중의 상당수는 학생운동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주변 환경 속에 위치해 있었다. 일례로 사례7은 부모님께서 자신의 학생회장 활동을 자랑스러워하셨으며, 친구들도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그냥 서로의 삶의 방식으로 인정해주었으며 수업과제 등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이로부터 그들이 진로문제 외에도 가족이나 주변 인물을 통해 압력을 느끼는 상황 역시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의 합리적인 고려와 선택을 통해 큰 장애가 없다는 판단 아래 학생운동에의 본격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90년대 후반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참여 과정에는 다양한 동기와 결정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1996-1997년을 기점으로 그 전에 학교생활을 했던 이들이 보다 전통적인 운동 참여자의 유형을 띠는다면, 그 이후의 참여자들에게서는 개인적 이해나 자신이 속한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비롯된 참여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 포섭을 통한 수동적 동원에 의해서보다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참여를 타진하고 합리적으로 비용을 고려한 후에 참여를 결정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학생운동의 참여 시기나 동기, 과정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들 모두가 학생운동을 통해 자기 주변, 더 나아가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를 희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것처럼 적극적인 '환경조정의식(sense of environmental control)'³⁾을 가진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침체되어있던 당시의 학생운동 재생산을 지탱하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다.

3) 임희섭(1971)은 사회운동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조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환경조정의 의식(sense of environmental control)'을 지닌 사람들에 의해 일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5. 19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변화

안팎으로부터 변화의 필요성이 거세게 제기되자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운동의 생존과 재생산을 위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위기에의 대응은 현실감과 유연함을 구비한 새로운 학생운동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 그들은 보다 유연해진 태도로 운동 내·외부에 걸친 교섭을 통해서 시대적 흐름과 일반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했다.

1) 동원 전략의 수정

가. 운동 정당성 회복을 위한 폭력 지양

80년대의 사회운동이 새로운 '정통성'의 형성, 즉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추는 것이었다면 90년대의 사회운동은 '정당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었다(이신행, 1997).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와 같은 운동의 정당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며, 그에는 학생운동진영의 '폭력적 운동 방식'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민주화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까지도 지속되고 있던 폭력적 학생운동에 대한 비판은 1996년에 발생한 연세대 한총련 사태를 정점으로 최고조에 달하였다.

"화염병이 대의명분보다는 이미 하나의 리추얼로 자리 잡았었다"는 사례2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 관찰되는 폭력을 동반한 시위 형태는 방법론적 필요성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상당부분 관계화된 것이었다. 자연스럽게 1996년의 연세대 한총련 사태를 기점으로 학생운동진영 내부에서는 기존 운동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조직원들이 대거 이탈하였다.

사례4 :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면서 꼭 연세대를 사수해야만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 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여론의 지탄을 받았죠. 그걸 보면서 저는 제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이건 정말 아니다, 왜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한총련이 하는 일에 꼭 쇠파이프를 들고 전경들 때려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좀 달랐어요. (노)수석이 죽고 그랬을 때는 김영삼 정권을 정말 타도해야겠다는 분노에 차있던 시절이라 폭력을 사용하는데 죄의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당시에는 전경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96년 연대투쟁은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갔어요.

안팎으로부터 밀려드는 정당성의 위기와 그로 인한 동원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운동진영 일각에서부터 조직의 자성과 쇄신을 꾀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과도한 폭력 사용과 극단적인 전술의 채택이라는 과거 방식의 무비판적 답습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특히 학생운동의 위기를 목도한 이후에도 참여를 결정지은 신 유형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법적 절차에 의거해 대중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운동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실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사례1 : 솔직히 96년 이후에도 화염병이나 돌, 이런 폭력시위가 계속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네들이 그런 시위를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단독 시위를 하거나 인간띠라고 해서 시위대 앞에 늘어서서 폭력시위를 근절하자는 시위를 했죠. 이건 아니다, 왜 폭력시위를 하느냐, 정당하게 집회신고 하고 비폭력시위 하면 얼마든지 경찰도 협조할 수 있고 합법적인 시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막아서고 그랬죠.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는 기존 운동의 폭력성을 지양하지는 자기 성찰적인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서서히 공감대를 얻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운동의 정당성을 복구하기란 아직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인터뷰에서 언급되다시피 당시

학생운동의 폭력적 시위방식이 단기간 내에 완벽하게 근절된 것 역시 아니었다. 그때까지 고수해오던 운동방식을 갑자기 수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학생운동 내부의 노선과 사안에 따라 폭력에 대한 입장과 실천 정도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폭력 사용에 대한 내부 비판 및 자기 제어 덕분에 당시의 학생운동은 적어도 추가적인 정당성의 손실은 방지할 수 있었다.

나. 대상 존중적이고 유연화 된 동원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생운동의 동원 방식이 일반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이유는 그것이 '교조적이고 일방적인 동원'이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의 특징이 급진적인 이념으로부터 '대규모성과 전투성'으로 변화하면서, 학생회를 통한 '인원 동원'은 그 자체로 너무나 중요한 학생운동의 목표가 되어갔다(장석준·조하연·홍일표, 1997). 자연히 참여에 비자발적인 학생들에게로까지 범위를 넓혀 일단 머릿수를 채우고 보는 강압적이고 피상적인 동원 형태가 나타났다.

학생운동진영의 지속적인 참여자 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생대중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진영의 독단적인 사업 결정과 추진도 학생들의 불만을 증폭시켰다.

“총학만이 이 학교의 주인인가? 왜 연세 다수의 의견수렴 없이, 그들이 침묵한다고 해서 연세인 모두가 그들의 독단적 의견에 이용되어야 하는가? 연세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노력과 학교를 이렇게 짓밟아버린 독단에 대해 총학생회의 각성이 요구된다. 김영삼 정권을 규탄하는 투쟁을 하고 싶다면 연세인의 의견을 듣고, 그 후에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문을 나가서 연세 대표로서의 총학이 아니라 독립된 단체로 투쟁하라.”⁴⁾

전위대가 되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가려는 운동진영과 이미 뚝뚝하고 깨어있던 일반 학생들 사이의 갭이 학생운동이 냉소와 외면

4) “연대생들이 쫓, 한총련 논술 4문제.” 『길』. 1996년 10월. pp. 86-89에서 인용.

을 받게 된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그렇듯 학생대중에 대한 몰이해와 강압적인 형태의 동원의 결과로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학내에서 급격히 고립되었다.

위기의식을 느낀 학생운동진영에서는 변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섰던 이들은 주로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에 진입했던 신 유형의 참여자들이었다.

사례10 : 제가 반 학생회장으로 있을 때 학생회와 마찰이 좀 있었어요. 어떤 집회가 있을 때 제 기본입장은 우리 과 학생들이 싫어하고 귀찮아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이미 억지로 설득하고 데려가려고 해도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였으니까요. 단과대 쪽 입장을 이해는 하면서도 보통은 구태여 그렇게 억지로 많이 데리고 나가지 않았죠. 애들이 뭐라는지 아느냐, 나도 어쩔 수 없고 이 이상은 도저히 어렵다, 자꾸 이러면 여론만 더 악화될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들은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동원 지침을 구태여 그대로 이행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때로 집행부와 마찰을 빚더라도 예전처럼 억지로 머릿수를 채우는 강압적인 방식은 지양하고자 했다. 일선에서 습득한 학습의 결과로 학생들의 의사를 보다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맞닥뜨리게 될 역효과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때까지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일선에서의 반응들을 윗선에 전달하면서 운동의 노선과 강도를 제어하고 타협할 것을 권고하는 조정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한편, 일반학생들을 객체로 상정하는 형식적 동원의 무용성을 파악한 참여자들은 학생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학생들로부터 유리되어 독단적으로 활동했던 과오를 자성하면서 학생들 사이로 직접 들어가 다시 그들을 주체로 세우고 적극적으로 편입하려는 모습들이 출현하고 있었다.

사례9 : 따져보면 어쨌든 성공과 실패 사이는 딱 하나예요. 등록금 인상하면 안 된다, 통일하자, 이 사회의 구조나 IMF에 문제 있다, 다

맞는 이야기지만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체로서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와 회의를 하고 학우들에게 일일이 연락 전화를 하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1:1로 만나고 했어요. 총학생회장이 된 이후에도 직접 뛰었어요. 그때는 목표가 수첩을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학교 학우들을 다 만나고 이름을 적어보자였어요. 그래서 강의실 방문은 기본적으로 매일 하루에 3곳씩 들어갔고 벤치들을 돌아다니고 하면서 무조건 만났어요. 만나서 학우들 이름을 적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듣고 했지요. 그 후에는 대자보를 붙여서 그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되고 있다고 알리던가 아니면 연락처로 연락해주고 그랬죠. 쓴 소리를 듣던 좋은 소리를 듣던 직접 부딪쳐야 하는 게 핵심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만나야 되요. 솔직히 복지가 좀 안될 수는 있어도 학우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로 믿음이 생기거든요.

학생운동진영 내부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례9 외에도 사례10, 사례11 등의 참여자들은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과 보다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어울리면서 그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애썼다고 진술했다. 그럼으로써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불만이나 제언을 접수하고 그를 다시 운동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변화된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기존의 시대착오적인 동원 방식에 다양한 수준의 내·외부적 변형을 줌으로써 학생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 결과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는 한결 유연해지고 대상 존중적인 형태의 참여자 동원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몇몇 시도들을 통해서 당시의 학생운동 전체가 완전히 변화 중이었다고 속단하기는 곤란하다. 학생운동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던 90년대 후반 당시는 사례8의 언급처럼 “이미 어느 정도 인원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운동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그와 같은 변화의 도입이 불가피했던 측면

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나타나다시피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운동권의 입장과 고충을 강하게 선전하는 경우도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학생운동 내부에서 기존의 동원 방식에 대한 반성과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었으며, 일부를 통해서나마 실질적인 변화의 추구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운동 문화의 쇠퇴

가. 대중화 전략

90년대 학생운동이 외면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중 괴리적인 운동 문화’ 때문이었다. 한국의 학생운동은 민중 지향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풍물이나 민중가요와 같은 전통문화나 소위 운동권 문화에 근거한 표현 방법론들을 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양식들은 90년대의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었다. 학생운동진영 내부에서는 운동의 전통과 순수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대중성을 가미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90년대 후반에는 그와 같은 논의가 더욱 격화되었는데, 침체된 학생운동진영의 행사들이 저조한 참여율만을 보이며 그들만의 잔치에 그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운동의 위기 속에서 90년대 후반의 신 유형의 참여자들은 기존의 학생운동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고집하기보다는 유연하고 비판적으로 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노래가 너무 노래 같지 않아서 나 스스로도 민중가요에 거부감을 느꼈었다”는 사례¹²의 진술처럼 이념이나 정파에 앞서 자신들 역시 학생대중들과 동시대적 취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 고유의 문화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 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일반 학생들이 느끼는 낯선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편이었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서는 개량주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방편으로써 ‘대중화 전략

이 점차 힘을 얻어갔다. 풍물이나 몸짓, 민중가요와 같은 기존 양식들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서서히 일반 대중문화에 기반한 표현방법들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사례7의 언급처럼 “스스로 세련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신세대나 X세대들이 플래카드나 포스터, 구호 등에 유행어, 만화, 가요 등을 차용”했으며, 그러한 변화는 학생운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거부감을 완화하고 순간적으로나마 흥미를 끄는데 일조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당시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질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기도 했다.

사례11 : 운동하면서 제 목표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하자는 거였어요. 지나다니면서 잠깐씩이라도 눈 돌리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요. 예를 들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구들 같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자고 예쁜 엽서를 나눠주고 그걸 써서 다시 학생회로 돌려주면 배달을 해준다고 했지요. 그 행사가 반응이 엄청 좋았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아요. 또 당시만 해도 강연을 잘 안하시던 홍세화 선생님을 초청해서 강연회를 가졌는데 그때 강의실이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걸 보면서 학생들이 옛날 같이 우르르 모이고 그러지는 않지만 대학이란 곳이 아직도 우리가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만 잘하면 많은 기회가 있구나 싶었어요. 학생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스스로 많이들 찾아온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처럼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진영 한편에서는 정치적인 집회나 시위 외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느끼며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소소한 문화행사들을 여는 경우가 잦아졌다. 대학사회의 일상 속으로 편입하려는 새로운 노력의 일환이자, 그와 같은 시도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지지를 재획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진영의 변화된 모습은 정치적 이슈 중심의 학생운동에 피로를 느끼던 일반 학생들에게 신

선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대상에 따라서는 학생운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피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한편, 학생운동 참여자들 역시 보다 유연한 자세로 학생대중 사이로 어우러지는 가운데 그들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사회에 무관심하다고만 생각했던 것은 편견이며 그런 그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보다 중요한 화두임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의 대중화 전략은 학생운동진영과 학생대중들이 서로를 재발견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나. 운동과 개인 삶의 조화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진영이 존속에의 위기를 겪게 된 내부적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개인을 경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조직 중심적인 운동문화’에 있었다. 사회 전반적 분위기가 한층 자유스러워지고 현실적으로 변화한 9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도 운동의 존속과 효율을 위해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취향과 욕구는 여전히 제재 받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의식과 생활 모두를 억압하는 방식의 운동은 90년대 후반에는 더 이상 지탱되기 힘든 것이었다. 이념적 지향이나 책임감이 아주 강한 소수를 제외하면, 침체해가던 학생운동에 그나마 몸담았던 참여자들조차도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이탈해갔다.

학생운동이 침체 일로를 걷던 90년대 후반에 이르자 운동에 새로이 진입한 신 유형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의 쇄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례13 : 제가 XX반 반장을 하면서 생각했던 우리 반의 존재 이유는 선배들이랑은 달랐지요. 저는 생각 못했던 친구들이 와서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나 지식, 사고방식을 길러가는 것으로도 만족을 했어요. 당시는 학생운동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키는 것에도 한계가 왔고 그 한계가 예전보다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던 시대였지요. 때문에 학생운동에 올인했다가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것보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면

서 매회 매순간 그 생각을 실현해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체가 벌써 하나의 운동이고 학생 때 한번 불 지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이전처럼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을 최우선으로 두기보다는 개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을 계발하면서 삶과 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조화롭게 실천해갈 수 있어야 더욱 바람직한 운동이라는 주장들이 표출되었다. 그리고 그렇듯 변화된 생각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참여자들이 나타났다. 개인차는 존재하지만 그들은 학생운동을 지속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 역시 균형적으로 가꿔가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과 수업이나 영어공부, 어학연수, 각종 문화생활에 투자하고 그를 향유하면서 운동가 외로서의 자신에게도 나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 같은 경향이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덕분에 이전에 비해 운동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사례4 : 모든 것을 다 투쟁과 연관시킨다거나 계급과 민족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매우 편협하고 독단적인 시각을 가진 운동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그런 운동가들의 언행이 운동에 더 부정적인 것 같아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문화생활도 다 누리고 외국에도 나갔다고요. 저 스스로도 그런 것들을 다 누렸고요. 저는 학생운동 경험이 한 개인이 평생 동안 모은 자산 중의 하나였으면 좋겠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감옥에 갔다 온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로만 남지 않았고요.

이처럼 운동과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고자 했던 시도들은 학생운동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운동 참여자들의 변화된 접근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들이 꼭 이념적 지향이나 의식적 성숙에 의거해서만 추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념에만 의거해 행위 하기에는 그들 스스로가 이미 변화된 사회상과 개인주의를 충분히 체화하고 있는 세대였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조직을 위한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은 더 이상 그대로 수용하기 힘든 개념이었다. 사례13은 인터뷰 과정에서

“나 자신부터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권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솔직히 IMF 이후 힘들어진 취업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틈틈이 학점 관리랑 영어공부도 하고 스케줄 조정에도 신경 썼다”는 사례8, “군대에 다녀온 후에는 졸업 이후가 걱정되어 운동 중앙에 참여하기보다는 학회 활동 정도에만 머물렀다”는 사례3의 고백을 통해 당시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목도했던 현실적인 부담과 고민을 엿볼 수 있다. 결국, 학생운동문화를 보다 개인 존중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려던 90년대 후반의 일련의 시도들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성숙한 학생운동에 대한 지향과 더불어 참여자 개인들이 맞닥뜨렸던 현실적 장애에 대한 타개책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라 할 것이다.

2) 의제의 확장과 분리

가. 학내 생활의제의 부상

어떠한 사회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및 참여자들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해야 한다. 개인들이 참여할만한 동기나 소재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동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의 학생운동은 정치적인 것에서 보다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현실문제들로 옮겨가고 있던 학생대중들의 변화된 욕구를 적절히 간파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학생운동의 역할에 대한 학생들의 바람도 변화된 양상으로 나타났다. 1994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때 이미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44%의 학생들이 학생운동의 대표격 조직인 총학생회에 ‘학생권익의 개선’에 앞장설 것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학내복지’ 항목에 응답한 학생들도 30.16%에 달해, 당시 학생들이 총학생회가 자신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총학생회의 바람직한 역할

내용	비율(%)
학생권의 개선	53.44
학내 복지	30.16
학생운동	9.26
환경, 여성 등 사회운동	3.70
학사행정 참여	2.96
신입생 환영회 등 학내행사 개최	0.53

출처: 『대학생,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대학문화그룹, 1994, p. 57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의 학생운동은 여전히 민주화와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자연히 학생운동 진영이 일반 학생들의 입장이나 이해를 살피고 대변하지는 않으면서 자신들의 정치 사업에 동원하려고만 든다는 불만이 늘어났다.⁵⁾ 학생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를 보내는 대학생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정치 중심적 학생운동으로부터의 인식 전환은 운동이 침체된 90년대 말에 들어서야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기존 학생운동에 대한 의식적 공감보다는 여타의 개인적이거나 현실적 동기들로부터 운동에 진입했던 참여자들이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사례6 : 콩나물시루에서 9시부터 5시까지 공부하고 강의실 안전이나 조명도 엉망이고 해서 생활개혁위원회랑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생활개혁위원회는 학생들에게 키 이슈인 도서관 문제를 주로 다뤘어요. 도서관 자리 찾는 문제를 해결하고 책이 많이 분실되니까 책꽂이를 만들어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붙여줬지요.

5) 1994년의 대학생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학생회의 활동에 대해 그저 그렇다, 대체로 불만족이다, 아주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총 81.9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만족한다는 학생들은 18.07%에 불과했다. 총학생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무관심(37.14%)에 이어 '지나친 정치투쟁(21.22%)'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어서 정파이기주의(10.61%), 학생권의 위법(9.81%), 비민주적 운영(9.28%) 등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운동진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대학문화그룹, 1994, pp. 59-60 참조)

하나 밖에 없는 학생식당의 가격이나 식단 문제, 또 동아리 방배정 문제 같은 것도 신경썼고요. 또 학생연맹이랑 교수님 몇명이랑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강의평가를 시작했고 그걸 공개해서 교수님들께도 드리고 했지요. 그런 일들은 학생들도 다 좋아했고 참여율도 대단히 높았어요.

사례1 : 전공교양백서 발간이 저희 공약에 있었어요. 당시에 학부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전공이나 과목을 선택해야 할지 가이드라인도 없이 막연히 선택하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공교양백서 팀을 만들어서 선배들은 어떤 과목을 들었고 그 과목을 들으면 어떤 점이 좋거나 꼭 들어봐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펴냈죠

변화하기 시작한 학생운동은 그간 소홀해왔던 교내 교육문제 해결이나 학생복지 강화에 특히 집중하고 있었다(서울대학교백서, 2000; 2001). 학생운동진영은 학생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등록금 인상이나 학부제 도입, 커리큘럼과 같은 교육안건들을 발굴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측과의 투쟁에 나섰다. 과방이나 도서관, 식당, 기숙사 등과 같은 학내시설에 대해서 역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생활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 당시 학생들의 주된 관심사였던 취업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취업강의나 선배와의 대화 등의 행사를 마련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처럼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새로운 시대인식을 가진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학내 생활의제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할애하고 구체적 인 실천을 행하는 중이었다. 그전까지의 학생운동이 모호한 대상층을 겨냥한 정치사업 일변도의 사업에 집중했다면, 이 시기부터의 학생운동은 그들의 근거인 학생대중에게 다시금 시선을 돌리고 요구에 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물론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개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역량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당시의 학

생운동에서 학내 의제 자체가 중요 이슈로 급부상 중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대학들의 총학생회선거 공약집 등의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로 갈수록 총학생회선거 후보들의 공약에서 '등록금 동결', '복지시설 확대', '수업권 보장' 등의 생활의제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공약집의 가장 전면에 배치되고 있었다.⁶⁾ 물론 학생운동진영의 공약들이 모두 실천되었던 것은 아니며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형식적으로나마 학내 생활의제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해 다뤄야 한다는 공감대가 당시의 운동 내부에 확산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뒤늦게나마 다시금 학생대중에게로 돌아가려던 학생운동진영의 자기 쇄신이 학생운동에 대한 학내의 회의적 시선이나 무관심을 특별히 바로잡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안이나 상대에 따라서는 운동에 가졌던 불신을 차츰 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했다. 학생운동진영에서 제시한 체감 가능한 학내 생활의제들에 대해 각성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학생들이 소수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학생운동진영의 문제 해결 노력에 지지를 보내거나 소극적으로나마 참여하는 동조자가 되기도 했다. 일부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신 유형의 참여자로서 학생운동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나. 부문 운동의 활성화

90년대 한국 사회운동 지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운동의제의 다변화라고 할 것이다. 이전까지의 한국 사회운동이 거의 전적으로 민주화라는 유일한 목표를 향한 것이었다면, 90년대 시민들의 관심은 여성, 분배, 환경, 소비자, 정치, 교육, 경제, 종교, 의료, 인권 등의 다양한 섹터들로 나뉘어졌다. 학생운동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90년대 후반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관심사는 민주화와 통일과 같은 정치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부문으로 확산되어가기 시작했다.

6)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선거공약집. 1994년-2000년 참조.

그와 같은 이행은 운동이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90년대 중반 무렵부터 불거진 기존 학생운동에 대한 피로감과 반작용 때문이기도 했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진영에서 나타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문별 변화는 바로 ‘여성운동’의 부상과 견고화이다. 가부장적인 학생운동조직 내부의 남녀차별, 성폭력 등의 피해사례가 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젠더 정체성을 고취시키려는 노력들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권인숙, 2005). 기존의 정치투쟁 중심 학생운동에서 다루는 여성 관련 의제의 협소함과 피상성도 학내 여성운동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사례7 : 한총련에서 여성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였어요. 정신대 문제랑 기지촌 문제. 그것도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민족적인 문제로만 풀어나가려고 했지요. 그러던 중에 4학년 때 일본군 위안부 국제법정을 위해 열린 한국 학생법정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 처음으로 아, 이 문제를 민족적인 구조로만 푸는 것이 얼마나 여성들의 경험을 재 폄하하거나 혹은 침묵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본격적으로 여성주의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3학년이 끝나고 저한테 총학생회 선거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걸 거부하면서 대오에서 나왔죠. 계급해방이 되면 여성해방도 되나? 통일이 되면 여성문제도 해결되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대 회장은 독자적인 여학생 운동은 필요 없고 그냥 총학에 여학생위원회를 만들어서 여학우들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여성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대오랑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의 학생운동진영은 과오를 인정하고 동등한 성별성과 여성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들에 매몰된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었다. 경직된 가부장적 조직에 문제의식을 가진 참여자들은

조직 내부에서 본격적인 논쟁을 벌여나갔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기존의 학생운동진영으로부터 분리해 나오기 시작했다. 총여학생회나 여성 관련 동아리가 설립되어 여성주의 운동가들의 중심 거점이 되었다. 그들은 세미나, 토론회, 문화제 같은 각종 여성주의 관련 행사와 홍보를 통해 대내외에 걸쳐 젠더평등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전체 학생운동의 지형에서 여성운동을 특화시키면서 양적·질적인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중이었다.

90년대 후반에 학생운동 내외부에 걸쳐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바로 '제도화된 정치운동'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당시의 학생운동진영 일각에서는 기존 운동의 틀 안에서 펼치는 정치적 활동에 한계와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집회를 열어도 겨우 구색을 맞출 수준의 사람만이 모임 뿐이었고, 강압적으로 동원을 하자니 학생 대중들의 불만과 충돌만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학생운동을 통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 여의치 않게 되자 자연스럽게 보다 공식화되고 효과적인 정치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보장된 정치적 안정 하에서 진보적인 시민단체나 정당들이 출현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가던 시대적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논의해도 실제 정치현장에 들어가 있지 않고 시민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발전해갔다”는 사례5의 진술이 그를 뒷받침해준다. 그 결과, 1997년 대통령선거 즈음부터 대학생들의 직접적인 정치현장 참여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적지 않은 학생운동가들이 노동자와 서민을 대표하는 진보정치를 표명했던 ‘국민승리21’의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그와 같은 경험을 계기로 새로운 형식의 운동 가능성을 읽으면서 대학 내부에는 학생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정치집단이나 정당의 지부격 조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제도화된 정당운동 쪽으로 노선을 선회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사례12 : 저는 완전히 결심을 했고 총선 때 민주노동당 쪽에 가서 활동을 했어요. 학생운동은 정치적인 목소리만 가득한 기존의 운동은 버려야한다고 생각해요. 학생운동 조직이 민주투사가 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요. 게다가 이미 많은 정당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당 조직과 당원들을 구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합법적인 정치적 틀 내에서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점차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한결 성숙해진 한국의 정치 환경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로는 이미 정당이나 압력단체 등의 공식화된 채널로 무게중심이 옮겨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정치운동에 뜻을 두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학생운동 참여자들이 보다 공식적이고 전문화된 정치집단으로 중첩되거나 분리되어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앙정치와 직접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인 과급력을 가지려는 활동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운동진영이 해왔던 기존의 단일적인 대규모 정치운동은 축소되었으나 참여자 개인들은 각각의 정치적 지향을 분명히 하고 해당 전문조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 외에도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진영 안팎에서는 다양한 부문 운동들이 새로이 출현하고 있는 중이었다. 주로 학생운동 경험 가운데 관심사가 변화하거나 본디부터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을 더 효과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다른 운동을 구성해간 경우들이다. 이 연구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부문 운동의 예로는 '기독교운동'과 '보건의료운동', '지역운동' 등이 있다.

사례1 : 96년도에 한총련 사태에 대한 의문과 회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과연 이 대학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학생회 선거에 나가게 된 거죠. 나름대로 우리 정파, 기독교학생위원회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했고 욕은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너네는 비운동권이 아니라 기독교운동권이다, 그리고 정말 사업 열심히 했다, 이 두 가지는 기존 운동권 애들로부터도 인정받았어요. 한편 그때의 실수와 경험들이 분명 지금 더 나은 기독교운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어요.

사례6 : 우리 과에서는 보건의료운동을 하면서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건강권이라는 것은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어떤 계층적 차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보건의료를 누릴 수 있고 건강생활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환자들과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고 감을 잡았고 그런 일환에서 각종 사업을 벌여나가는 거죠. 그전에도 어느 정도 관여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졸업을 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점차 전공과 관련 있는 보건의료운동 쪽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쪽으로 오게 됐죠.

새롭게 형성된 학생운동 참여자들의 부문 운동들은 보통 운동 주체인 개인과 긴밀히 접목되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방향 선회 결정을 내리게 된 동기의 대부분이 참여자 자신의 현실적인 위치와 미래에 기대되는 역할에 대한 고려에서 비롯되고 있던 것이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해당 운동에 헌신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스스로 구체적인 개입 지점을 포착하고 참여를 결정했기에 해당 운동에서 다루는 의제나 구호들을 체화하고 실천하기 훨씬 용이했기 때문이다. 자연히 참여에의 지속도나 효과 역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이 연구는 19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이 총체적인 위기상황 속에서도 신 유형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함으로써 운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있었음을 밝히고자 했다. 당시의 학생운동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학생운동을 둘러싼 구조적이고 개인적인 맥락 모두를 분석하였다. 우선 90년대 후반의 사회 환경적 정황을 살펴

으로써 그가 학생운동과 학생운동 참여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심층면접을 실시해 침체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던 개인들의 의식과 실천을 소상히 밝혀내고자 했다.

90년대 후반에 연이어 발생했던 연세대 한총련 사태(1996), IMF 구제 금융 사태(1997), 대학들의 학부제 도입은 학생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이념 지향적 행위자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학생운동의 기존 동원방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당시의 학생운동은 극심한 위기상황을 맞게 되나 운동을 지속하는 참여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미 침체기에 접어든 학생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신 유형의 참여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운동진영으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의식화와 동원을 통했던 전통적 유형의 참여자들과는 참여 동기와 동원 과정에서 차별화된다. 신 유형의 참여자들은 본래부터 학생운동에 동정적인 태도를 내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금 인상이나 학생복지와 같은 ‘개인의 이해 보전’, 학과모임이나 동아리처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소멸 방지’와 같은 현실적인 사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한편 이미 학생운동에 동정적이었던 개인들은 외부로부터의 동원 이전에 스스로 먼저 운동에 대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탐색’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 학생운동의 이념에 공감하고 자신의 신념에 확신을 가지더라도 현실적인 장애를 고려하는 ‘합리적 선택’을 통해 운동에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데, 그들이 당면했던 참여 비용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은 여전히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외부에 걸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신 유형의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운동의 동원 방식과 운동 문화, 운동 의제 부문에 걸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시도되었다. 신 유형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기존의 교조적인 동원 방식과 폭력 시위로 인해 훼손된 운동의 정당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폭력적 운동 방식은 점차 지양되었으며 학생들의 동원에 대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대상 존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시대착오적인 대중 괴리적이고 조직중심적인 운동문화 역시 쇠신의 대상이었다. 일부의 학생운동 참여자들은 대중문화를 활용하거나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의 대중화 전략을 통해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서는 중이었다. 내 부적으로는 성숙한 운동 문화의 정착과 함께 참여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동과 개인의 삶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한편 정치 투쟁 일변도의 운동에서 벗어나 시대적·개인적 필요에 따른 다양한 생활의제와 부문운동들을 발굴하고 실천해가는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 일각에서 나타났던 자아비판과 타개책 모색은 분명 의미있는 시도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평가하기에 대중들의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거나 침체된 운동에 활력을 더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었다. 학생운동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이 이미 깊었던 데 비해 변화가 과격적이지 못했고, 그마저도 내부 입장차 등으로 인해 운동진영 전반에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 유형의 참여자들의 등장이 위기에 빠진 학생운동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외형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변화의 움직임이 당시 학생운동의 지형을 확장해갔으며 보다 성숙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질적 도약할 수 있는 한 단초를 제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제까지의 학생운동 연구에 포함되어오지 않은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그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당시의 학생운동이 규모와 역량의 급격한 축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일반적인 단정과는 달리 완전한 소멸 상태는 아니었으며, 운동의 변화와 성숙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 중이었음을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밝혀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심층면접 자료에 비해 관련 보조 자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는 점이다. 90년대 후반의 학생운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수준인데다, 운동 친화적이지 못했던 당시의 시대상황까지 겹쳐 운동진영이 가급적 비공개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내부 사료의 수집 역시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분석의 상당 부분을 심층면접 자료에 의존하다보니 당시의 운동지형과 참여자들에 대한 해석이 자의적이고 편향적으로 흘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적은 사례수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양한 배경과 의식을 가진 대상자들을 선정함으로써 편향성을 제거하고 최대한 많이 면접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간과 비용, 대상자 섭외 상의 제약으로 인해 그가 여의치 않았다.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90년대 후반 학생운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 의미를 충실히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한 더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경실련 대학생회. 1993. 『다시 출발하는 학생운동』. 비봉출판사.
- 권인숙. 2005. 『대한민국은 군대다』. 청년사.
- 김기식. 1997. “80년대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사회진출: 고민과 모색”. 『역사비평』. 39호.
- 김원. 1999. 『잊혀진 것들에 대한 기억: 1980년대 한국 대학생의 하위문화와 대중정치』. 이후.
- 김재은. 2003.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구성된 주체 위치의 성별화에 관한 연구(1985~1991): 상징정치 담론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학문화그룹. 1994. 『대학생,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대학문화그룹.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연구부. 2003. 『한국학생운동관련 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혜리. 2003. “대학에서의 취업준비 과외학습의 유형과 비용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3권 3호.
- 박현귀. 1997. “80년대 변혁운동가들의 정체성 변화과정: ‘운동권 출신’의 여성모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 1997. 『레드 바이러스』. 거목.
- 서울대. 2001. 『서울대학교백서: 2000-2001』. 서울대학교.
- 서중석. 1997. “1960년 이후 학생운동의 특징과 역사적 공과”. 『역사비평』. 39집.
- 송병헌. 2003. “한국 학생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생운동 관련문헌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신선영. 1997. “삶의 전기(轉機·turning point)로서의 학생운동 경험과 일상생활”.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세대. 1994-2000.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선거공약집』. 연세대학교
- 원천희. 2000. “한국 좌익학생운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철. 2005. “현실사회운동의 분출과 연구의 상대적 지체: 2000-2004”. 『경제와 사회』. 65호.
- 이신행. 1997.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 87년 6월 항쟁과 9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 민음사.
- 이창언. 2005. “한국 학생운동의 연구 경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15호.
- 이후 편집부. 1998a.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9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성찰과 반성』. 이후.
- 이후 편집부. 1998b. 『오래된 습관 복잡한 반성 2: 학생운동의 감추어진 일상문화』. 이후.
-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의 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임희섭. 1971. “대중사회운동의 발생여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6호.

장석준·조하연·홍일표. 1997. “대학사회의 위기와 학생운동의 진로”. 『경제와 사회』. 33집.

전재호. 2004. “1991년 5월 투쟁과 한국 민주주의: 실패의 구조적 원인과 그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38집 5호.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한홍수·김도중. 1993. “한국 학생운동의 평가와 전망”. 『연세대 사회과학논집』. 24집.

Buechler, Steven M. and E. Kurt Cylke, Jr. eds. 1997. *Social Movements: Perspectives and Issues*. Mountainview, CA: Mayfield.

Hirshman, Albert. 1982. *Shifting Involvements: Private Interest and Public Act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Klandermans, Bert. 1997. *The Social Psychology of Protest*. Cambridge, MA: Blackwell.

Melucci, Alberto. 1988. “Getting Involved: Identity and Mobilization in Social Movement”. in B. Klandermans, H. Kriesi and S. Tarrow, eds.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Vol.1. Greenwich, CT: JAI Press. pp. 329-348.

Mueller, C. M. 1992. “Building Social Movement Theory”. in Aldon Morris and Carol M. Mueller, eds.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p. 3-26.

최승원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여성건강 및 복지정책에 관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최근 연구로는 공저로 『한국여성건강 현황 및 정책과제(2008)』가 있다.

[2008. 12. 31. 접수; 2009. 5. 27. 채택]